

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년 7월 13일
- 나. 제 출 자 : 목포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년 7월 22일
- 라. 상정일자 : 2002년 7월 23일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

-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 (제1차) : 총무국장 정 은 면
- 기획총무위원회 : 총무과장 김 준 수

나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근무제 시험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하고,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일반 휴직자의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토록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토록 함.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 6월) 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4. 위원회 활동

- 제21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(2002. 7. 23.)
 -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
- 안전검토 및 심사

5. 토론요지

- 주5일 근무제가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에 앞서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휴직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등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만 연가일수 공제를 받지 않았으나 연가일수 공제방법 개선을 통해 복직자도 근무기간만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,
- 공무원의 건강진단에 따른 공가사유와 관련하여 건강진단의 근거를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(2000년 7월 1일)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제정,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어 「원안가결」 키로 하였음.

6. 심사결과

【원 안 가 결】